

**MBC** 귀중

2024년  
추석 특집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5차)

결과 보고서

2024. 09. 13.

## 일러두기

- 본 조사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척도형 문항(예: 매우 + 다소)의 두 개 응답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척도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언론 공표 혹은 인용 시에는 조사개요를 참고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목차

##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6
II. 조사 설계	7
III. 조사 내용	8
IV. 표본의 특성	9

## 2장. 조사 결과 분석

I. 국정 운영 및 정당	11
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1
2. 남은 임기 국정운영 기대감	12
3. 정당지지도	13
4.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4
II. 각종 현안	15
1.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견해	15
2.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견해	16
3.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견해	17
4. 방송4법에 대한 견해	18
5.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해	19
6.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에 대한 견해	20

---

---

# 목차

7. 경제, 민생 정책 평가	21
8. 부동산 정책 평가	22
9.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 정책	23
10.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24
11.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	25
12. 의정갈등 책임	26
13.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견해	27
14. 친일외교에 대한 견해	28



# 1장

##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II. 조사 설계

III. 조사 내용

IV. 표본의 특성

#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요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MBC 보도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수집자료

- 국정 운영 및 정당
- 각종 현안



기대효과

전반적인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파악



보도 자료로 활용

## II. 조사 설계

### 2024년 정치·사회 여론조사(5차) (2024. 09. 13.)

조사 의뢰자	MBC
조사 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전국
조사 기간	2024년 09월 11일 ~ 09월 12일(2일간)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1,002명(가중값 적용 사례수: 1,002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
응답률	11.6%(총 8,673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2명이 응답 완료)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oint

## 2024년 정치·사회 여론조사(5차) (2024. 09. 13.)

### 국정 운영 및 정당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남은 임기 국정운영 기대감
- 정당지지도
-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 각종 현안

-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견해
-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견해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견해
- 방송4법에 대한 견해
-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해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에 대한 견해
- 경제, 민생 정책 평가
- 부동산 정책 평가
-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 정책
-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
- 의정갈등 책임
-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견해
- 친일외교에 대한 견해

## IV. 표본의 특성

구분		실제조사 사례수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전체		(1,002)	100	(1,002)	100
성별	남성	(529)	53	(494)	49
	여성	(473)	47	(508)	51
연령	18세-29세	(149)	15	(158)	16
	30대	(147)	15	(149)	15
	40대	(153)	15	(177)	18
	50대	(211)	21	(196)	20
	60대	(191)	19	(175)	17
	70세 이상	(151)	15	(147)	15
지역	서울	(199)	20	(187)	19
	인천/경기	(312)	31	(321)	32
	대전/충청(세종)	(99)	10	(108)	11
	광주/전라	(105)	10	(98)	10
	대구/경북	(96)	10	(97)	10
	부산/울산/경남	(151)	15	(149)	15
	강원/제주	(40)	4	(42)	4

## 2장

# 조사 결과 분석

I. 국정운영 및 정당

II. 각종 현안

# I. 국정운영 및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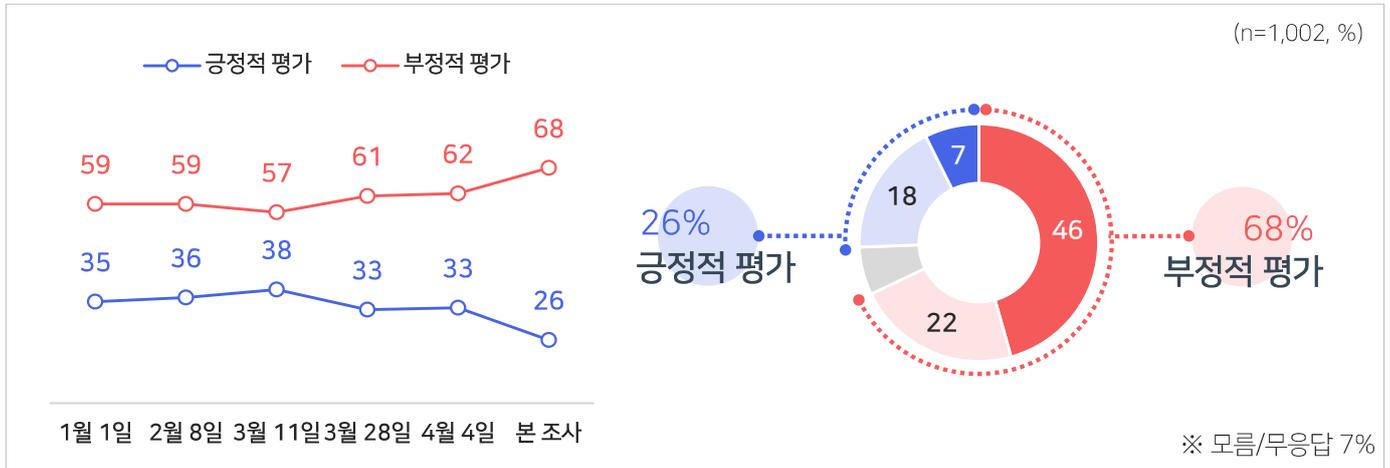
## 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문1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26%,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68%임(모름/무응답 7%).

☞ 지난 4월 4일 조사와 비교하여, '긍정적 평가'는 7%p 하락하였으며, 3월 11일 조사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임.

- ✓ '부정적 평가'는 30대(76%), 40대(84%), 50대(75%), 화이트칼라(77%), 진보 성향층(87%), 중도 성향층(7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긍정적 평가'는 70세 이상(52%), 대구/경북(38%), 주부(33%), 보수 성향층(50%)에서 특히 높음.



구분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종합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전체	(1,002)	7	18	22	46	26	68	7
연령	18세-29세 (149)	2	14	37	28	16	65	19
	30대 (147)	1	15	38	38	16	76	9
	40대 (153)	4	9	23	62	13	84	3
	50대 (211)	10	12	10	65	22	75	3
	60대 (191)	10	27	13	47	37	60	3
	70세 이상 (151)	16	35	17	27	52	44	5
지역	서울 (199)	6	19	22	49	25	71	4
	인천/경기 (312)	7	16	23	47	23	70	7
	대전/충청(세종) (99)	8	22	24	40	30	64	5
	광주/전라 (105)	3	8	12	65	12	76	12
	대구/경북 (96)	9	29	25	27	38	52	10
	부산/울산/경남 (151)	9	16	24	46	26	69	5
직업	강원/제주 (40)	14	24	21	38	38	59	2
	농/임/수산업 (29)	21	36	3	36	56	39	5
	자영업 (157)	10	18	16	54	28	70	2
	블루칼라 (212)	5	14	27	46	19	73	8
	화이트칼라 (239)	4	14	22	54	18	77	6
	주부 (193)	10	23	19	43	33	62	5
	학생 (62)	2	10	40	23	12	63	24
	무직/기타 (107)	10	27	23	34	38	57	6
이념 성향	모름/무응답 (3)	0	29	0	71	29	71	0
	보수 (277)	15	35	24	21	50	46	5
	중도 (374)	6	14	29	44	20	72	8
	진보 (264)	3	7	12	75	9	87	4
모름/무응답 (87)	5	18	18	43	23	61	16	

# I. 국정운영 및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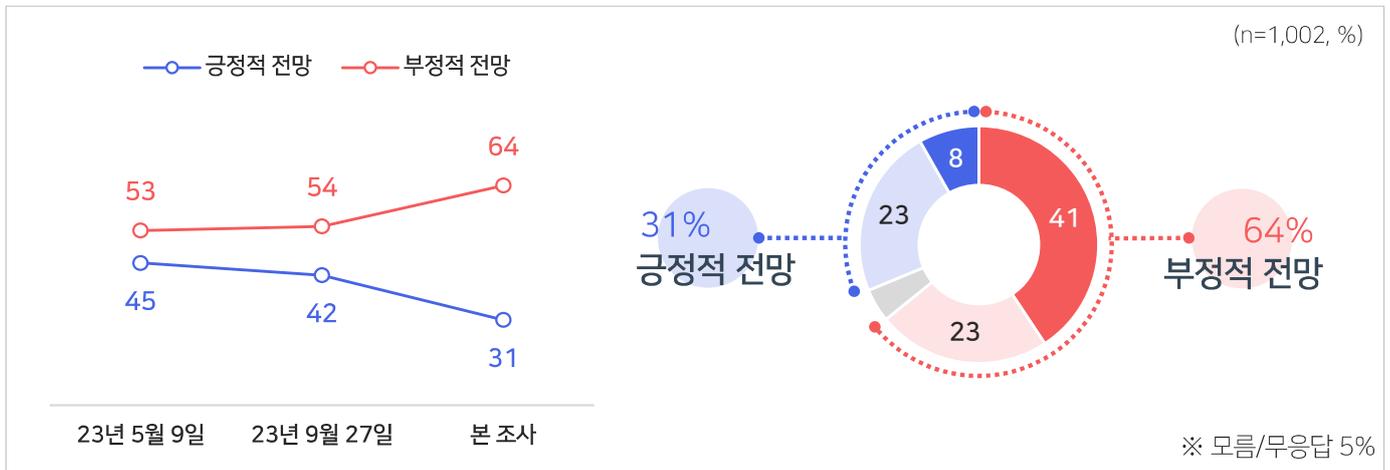
## 2. 남은 임기 국정운영 기대감

문2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잘할 것으로 보십니까? 잘못할 것으로 보십니까?

-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다'(매우+대체로)는 긍정적 전망은 31%, '잘못할 것이다'(매우+대체로)는 부정적 전망은 64%임(모름/무응답 5%).

☞ 지난 23년 9월 27일 조사와 비교하여, '긍정적 평가'는 11%p 하락함.

- ✓ '부정적 전망'은 30대(75%), 40대(80%), 50대(73%), 광주/전라(74%), 블루칼라(70%), 화이트칼라(75%), 중도 성향층(68%), 진보 성향층(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긍정적 전망'은 60세(44%), 70세 이상(60%), 대구/경북(48%), 주부(40%), 보수 성향층(5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매우 잘할 것이다	대체로 잘할 것이다	대체로 잘못할 것이다	매우 잘못할 것이다	종합평가		
						긍정적 전망	부정적 전망	모름/무응답
전체	(1,002)	8	23	23	41	31	64	5
연령	18세-29세 (149)	1	24	37	26	25	64	11
	30대 (147)	2	17	40	35	19	75	7
	40대 (153)	5	12	21	58	17	80	3
	50대 (211)	12	14	18	56	26	73	1
	60대 (191)	13	30	11	42	44	54	3
	70세 이상 (151)	14	46	17	19	60	36	4
지역	서울 (199)	6	21	25	44	27	69	4
	인천/경기 (312)	9	23	23	42	32	65	3
	대전/충청(세종) (99)	11	24	19	40	34	60	6
	광주/전라 (105)	1	14	20	54	15	74	11
	대구/경북 (96)	7	41	24	23	48	47	4
	부산/울산/경남 (151)	11	21	27	38	32	66	2
직업	강원/제주 (40)	15	24	23	35	39	59	2
	농/임/수산업 (29)	18	44	6	27	62	33	5
	자영업 (157)	12	20	19	47	32	66	2
	블루칼라 (212)	7	17	28	42	24	70	6
	화이트칼라 (239)	3	20	25	50	23	75	2
	주부 (193)	11	29	17	37	40	54	5
	학생 (62)	0	23	41	22	23	63	14
	무직/기타 (107)	16	29	23	29	45	52	4
이념 성향	모름/무응답 (3)	0	29	0	71	29	71	0
	보수 (277)	16	41	22	18	57	40	3
	중도 (374)	7	20	30	38	27	68	4
	진보 (264)	3	8	19	68	11	87	2
모름/무응답 (87)	7	24	15	39	32	54	15	

# I. 국정운영 및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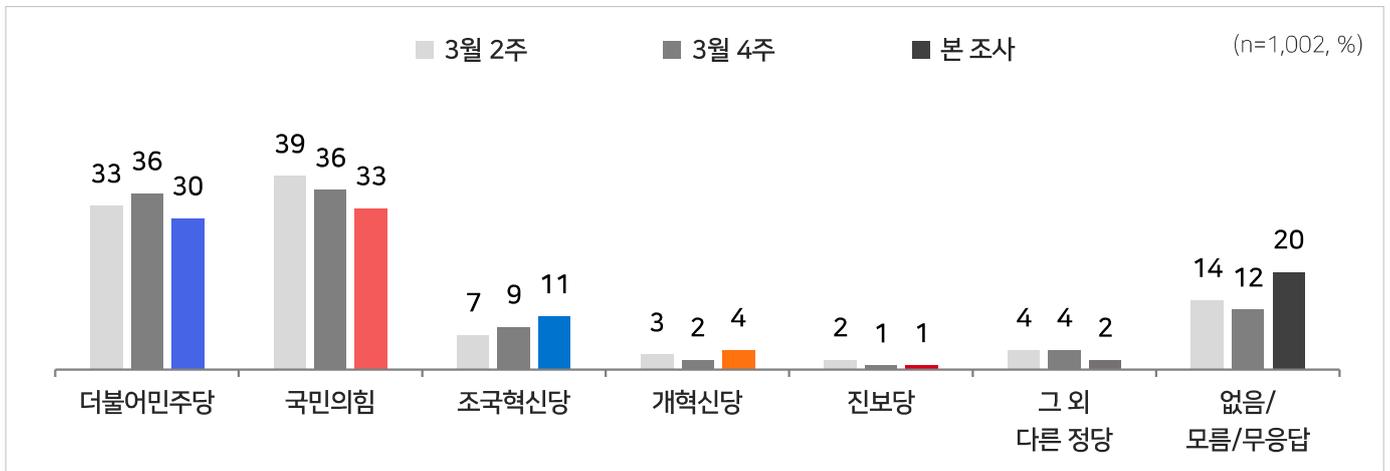
## 3. 정당지지도

문3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순서는 무작위순입니다.  
 문3-1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되는 정당은요? 보기는 이전에 불러드린 순서와 동일합니다.

-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33%로 비슷한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진보당' 1%순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0%).

☞ 지난 3월 4주차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6%p, '국민의힘'은 3%p 감소함.

- ✓ '더불어민주당'은 40대(45%), 광주/전라(47%), 진보 성향층(5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국민의힘'은 70세 이상(60%), 대구/경북(52%), 강원/제주(51%), 주부(40%), 보수 성향층(64%)에서 비교적 높았음.
- ✓ '조국혁신당'은 50대(18%), 60대(16%), 광주/전라(24%), 화이트칼라(17%), 진보 성향층(1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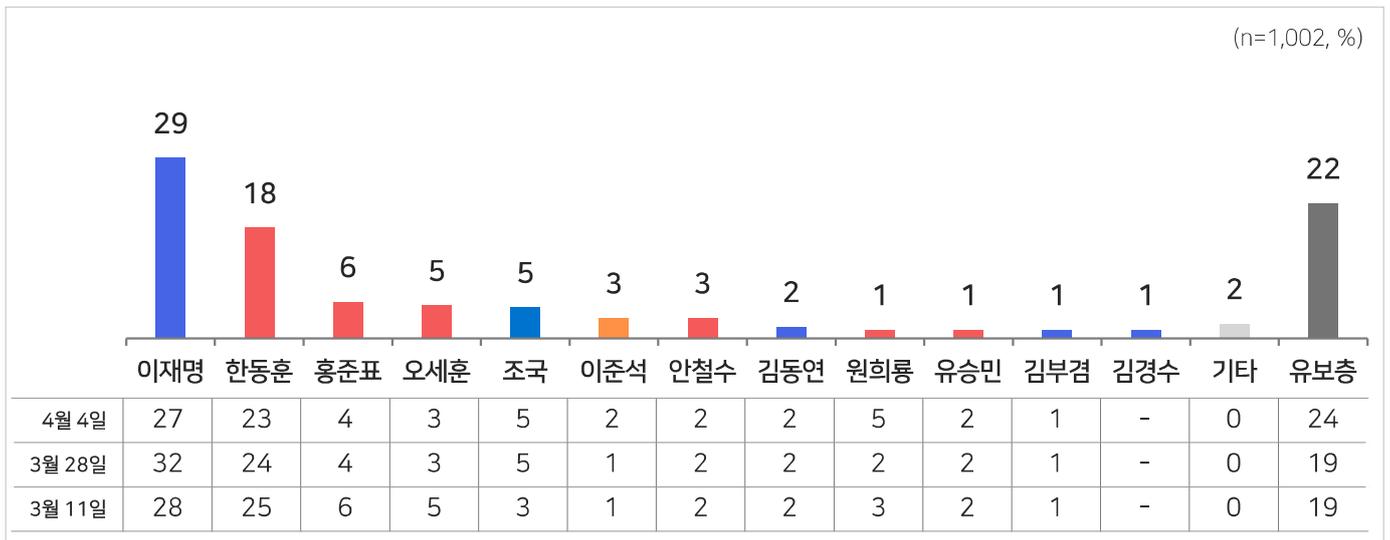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002)	30	33	11	4	1	2	20
연령	18세-29세 (149)	29	24	3	4	1	3	36
	30대 (147)	25	30	7	4	1	3	29
	40대 (153)	<b>45</b>	19	9	2	1	1	21
	50대 (211)	34	28	<b>18</b>	5	1	2	12
	60대 (191)	28	38	<b>16</b>	4	0	1	13
	70세 이상 (151)	19	<b>60</b>	8	2	0	1	10
지역	서울 (199)	26	32	11	5	0	4	22
	인천/경기 (312)	33	31	9	5	1	2	19
	대전/충청(세종) (99)	35	39	5	1	0	0	20
	광주/전라 (105)	<b>47</b>	6	<b>24</b>	2	2	0	20
	대구/경북 (96)	18	<b>52</b>	6	4	0	2	18
	부산/울산/경남 (151)	25	33	13	3	2	1	24
직업	강원/제주 (40)	24	<b>51</b>	10	4	0	2	8
	농/임/수산업 (29)	24	56	3	0	0	0	18
	자영업 (157)	33	33	10	5	1	0	18
	블루칼라 (212)	27	30	9	5	1	3	25
	화이트칼라 (239)	32	25	<b>17</b>	2	2	2	20
	주부 (193)	31	<b>40</b>	9	3	1	3	14
	학생 (62)	30	22	1	8	1	1	36
	무직/기타 (107)	32	40	10	4	0	2	12
모름/무응답 (3)	37	29	0	0	0	0	34	
이념 성향	보수 (277)	13	<b>64</b>	5	3	0	2	12
	중도 (374)	27	29	12	6	1	2	24
	진보 (264)	<b>55</b>	9	<b>18</b>	3	2	2	12
	모름/무응답 (87)	25	21	5	1	0	3	45

# I. 국정운영 및 정당

## 4.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문4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다음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무작위순입니다.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 29%, '한동훈' 대표 18%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물들은 한자리 수 비율로 나타남('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2%).
  - 여권 후보 중에서는 '한동훈'(18%), '홍준표'(6%), '오세훈'(5%) 등의 순임.
  - 야권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29%), '조국'(5%) 등의 순임.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299)에서는 '이재명'(67%)이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n=114)에서는 '이재명'(44%), '조국'(28%) 등의 순으로 높음.
  - 한편, 국민의힘 지지층(n=326)에서 '한동훈'(46%), '오세훈'(12%), '홍준표'(10%) 순으로 높음.
- ✓ '이재명' 대표는 40대(43%), 50대(40%), 60대(36%), 광주/전라(41%), 진보 성향층(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한동훈' 대표는 60대(23%), 70세 이상(41%), 대구/경북(24%), 보수 성향층(33%)에서 비교적 높음.



구분	사례수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조국	이준석	안철수	김동연	원희룡	유승민	김부겸	김경수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1,002)	29	18	6	5	5	3	3	2	1	1	1	1	2	22
연령	18세-29세 (149)	11	7	12	2	5	6	5	1	0	3	0	0	3	44
	30대 (147)	21	13	13	4	1	7	4	1	0	0	1	0	3	32
	40대 (153)	43	11	5	4	4	3	4	2	1	1	1	2	2	18
	50대 (211)	40	14	2	5	7	2	2	3	2	2	2	1	2	16
	60대 (191)	36	23	1	9	5	2	3	2	4	0	0	1	3	11
	70세 이상 (151)	17	41	3	9	8	1	3	2	1	1	0	0	3	13
지역	서울 (199)	28	18	5	7	4	4	2	3	1	2	0	1	4	20
	인천/경기 (312)	29	16	7	5	4	4	3	2	2	1	2	1	3	22
	대전/충청(세종) (99)	32	22	3	3	3	4	3	1	1	1	0	0	2	25
	광주/전라 (105)	41	4	4	3	16	4	4	5	1	1	1	1	0	15
	대구/경북 (96)	17	24	10	6	1	4	6	1	2	2	1	0	2	26
	부산/울산/경남 (151)	27	22	7	5	6	1	4	1	1	1	1	2	2	21
이념 성향	강원/제주 (40)	32	20	5	5	0	2	0	3	4	0	0	0	0	30
	보수 (277)	15	33	10	10	2	5	2	1	3	1	0	0	3	16
	중도 (374)	23	17	6	5	5	4	4	3	1	2	1	1	3	26
	진보 (264)	54	4	3	2	8	2	4	2	1	2	1	2	1	15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87)	25	15	2	3	3	2	3	0	1	0	0	0	4	41
	더불어민주당 (299)	67	2	1	2	4	1	4	2	1	1	1	1	0	13
	국민의힘 (326)	5	46	10	12	0	3	3	0	3	1	0	0	4	13
	조국혁신당 (114)	44	0	0	1	28	1	0	6	0	3	2	3	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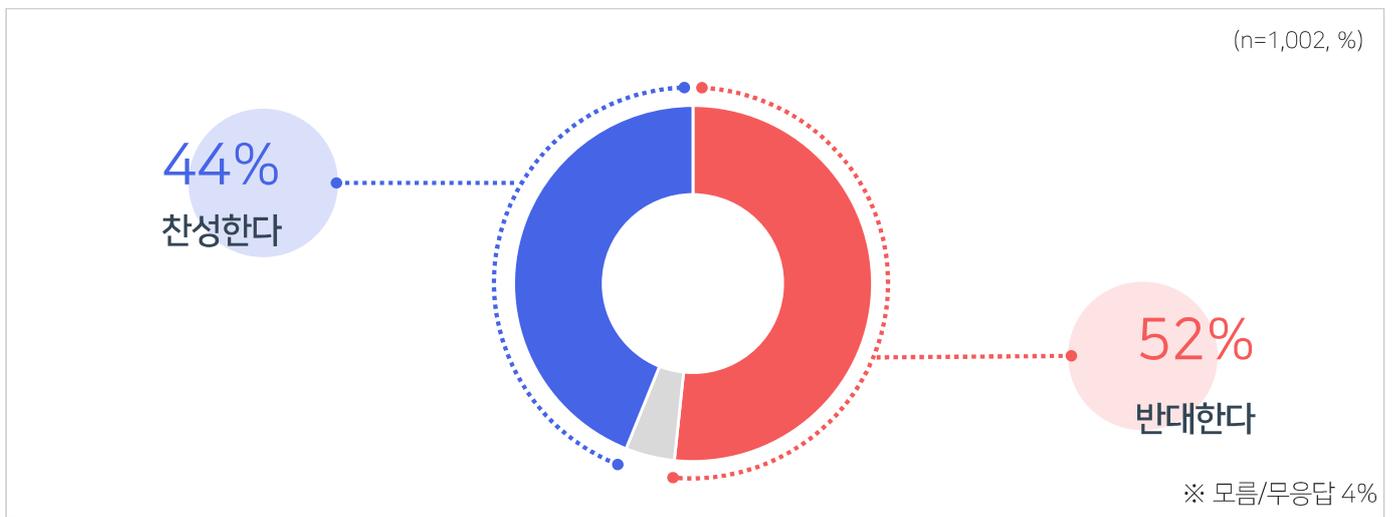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1.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견해

문5

선생님께서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한다' 라는 응답이 52%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 44%보다 높음.
- ✓ '반대한다'는 70세 이상(64%), 대구/경북(67%), 국민의힘 지지층(81%), 보수 성향층(7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찬성한다'는 50대(55%), 광주/전라(6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과 조국혁신당 지지층(74%), 진보 성향층(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한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44	52	4
연령	18세-29세 (149)	39	52	9
	30대 (147)	40	56	4
	40대 (153)	48	47	5
	50대 (211)	<b>55</b>	43	2
	60대 (191)	46	52	2
	70세 이상 (151)	31	<b>64</b>	5
지역	서울 (199)	44	52	4
	인천/경기 (312)	40	55	5
	대전/충청(세종) (99)	41	53	7
	광주/전라 (105)	<b>69</b>	27	4
	대구/경북 (96)	31	<b>67</b>	2
	부산/울산/경남 (151)	47	48	5
직업	강원/제주 (40)	42	56	2
	농/임/수산업 (29)	44	56	0
	자영업 (157)	43	54	3
	블루칼라 (212)	44	52	4
	화이트칼라 (239)	48	49	3
	주부 (193)	40	52	7
	학생 (62)	46	47	8
	무직/기타 (107)	39	55	5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3)	100	0	0
	더불어민주당 (299)	<b>72</b>	24	4
	국민의힘 (326)	17	<b>81</b>	2
	조국혁신당 (114)	<b>74</b>	24	2
	무당층 (195)	31	5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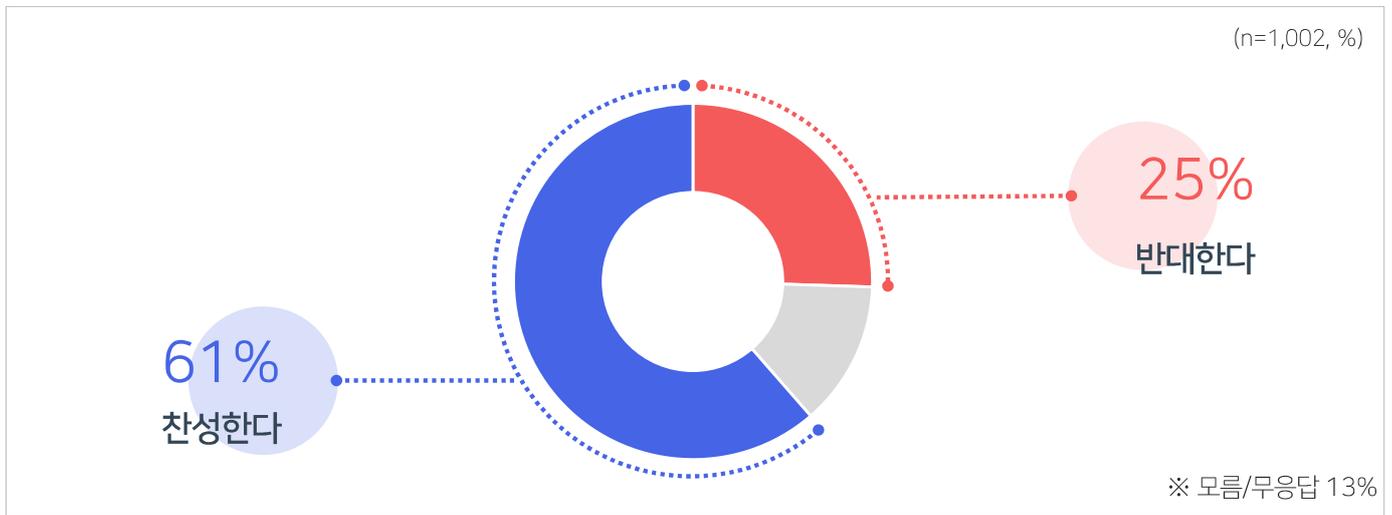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2.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견해

문6

지난 3일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채해병 특검법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망원인 규명, 부실 사고 조사 등을 위해서라도 채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응답이 61%로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에 반대한다' 25%보다 높음.
- ✓ '찬성한다'는 40대(71%), 50대(74%), 광주/전라(74%), 블루칼라(69%), 화이트칼라(6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과 조국혁신당 지지층(96%), 중도 성향층(66%), 진보 성향층(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대한다'는 60대(37%), 70세 이상(49%), 대구/경북(38%), 국민의힘 지지층(60%), 보수 성향층(5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사망원인 규명, 부실 사고 조사 등을 위해서라도 채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에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61	25	13
연령	18세-29세 (149)	64	11	25
	30대 (147)	59	20	21
	40대 (153)	71	19	9
	50대 (211)	74	19	7
	60대 (191)	59	37	4
	70세 이상 (151)	35	49	16
지역	서울 (199)	61	22	17
	인천/경기 (312)	64	25	11
	대전/충청(세종) (99)	59	30	11
	광주/전라 (105)	74	13	14
	대구/경북 (96)	50	38	12
	부산/울산/경남 (151)	62	24	14
강원/제주 (40)	45	35	20	
직업	농/임/수산업 (29)	34	61	4
	자영업 (157)	64	28	8
	블루칼라 (212)	69	22	9
	화이트칼라 (239)	67	21	13
	주부 (193)	57	27	16
	학생 (62)	60	9	30
	무직/기타 (107)	47	38	15
	모름/무응답 (3)	71	29	0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299)	84	7	9
	국민의힘 (326)	25	60	15
	조국혁신당 (114)	96	1	3
	무당층 (195)	65	13	22

##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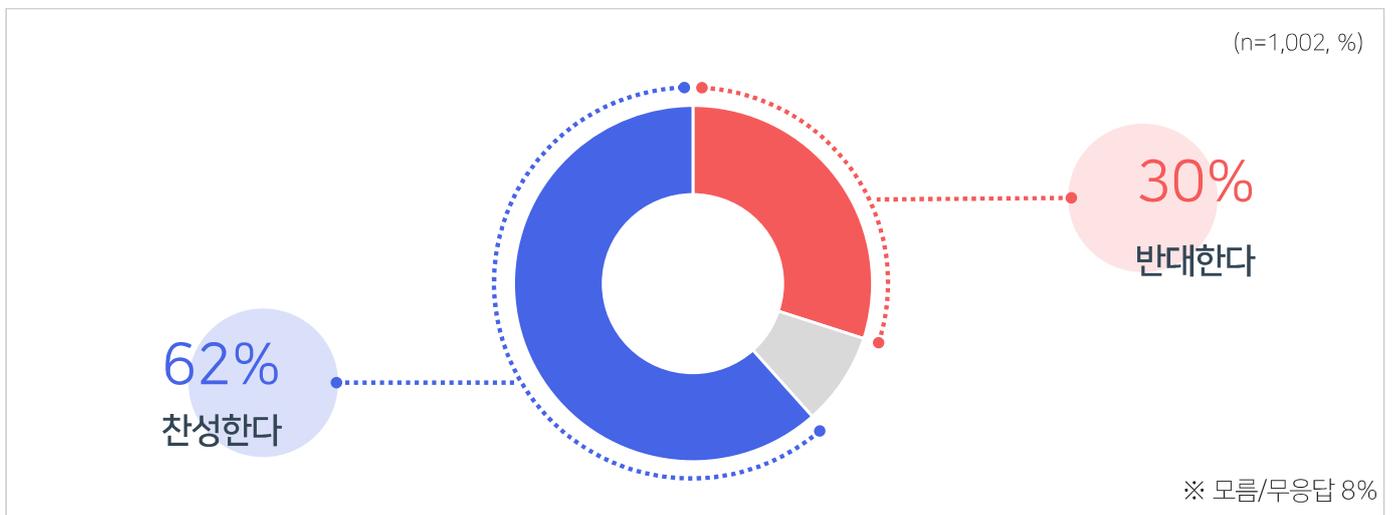
### 3.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견해

문7

지난 5일 야당에서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총선 공천 관여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건희 특검법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김건희 특검법 논의에 대해 '찬성한다' 응답이 62%로 '반대한다' 응답 30%보다 높음.

- ✓ '찬성한다'는 40대(77%), 50대(75%), 광주/전라(77%), 화이트칼라(7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과 조국혁신당 지지층(97%), 중도 성향층(66%), 진보 성향층(84%)에서 특히 높음.
- ✓ '반대한다'는 60대(41%), 70세 이상(56%), 대구/경북(43%), 강원/제주(46%), 주부(37%), 국민의힘 지지층(65%), 보수 성향층(5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62	30	8
연령	18세-29세 (149)	59	22	19
	30대 (147)	64	23	13
	40대 (153)	<u>77</u>	20	4
	50대 (211)	<u>75</u>	22	3
	60대 (191)	55	<u>41</u>	4
	70세 이상 (151)	34	<u>56</u>	10
지역	서울 (199)	63	28	9
	인천/경기 (312)	62	29	9
	대전/충청(세종) (99)	59	31	10
	광주/전라 (105)	<u>77</u>	20	2
	대구/경북 (96)	48	<u>43</u>	9
	부산/울산/경남 (151)	64	27	9
직업	강원/제주 (40)	48	<u>46</u>	6
	농/임/수산업 (29)	42	58	0
	자영업 (157)	64	29	7
	블루칼라 (212)	64	26	10
	화이트칼라 (239)	<u>74</u>	21	5
	주부 (193)	56	<u>37</u>	7
	학생 (62)	49	21	30
	무직/기타 (107)	48	45	6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3)	100	0	0
	더불어민주당 (299)	<u>86</u>	10	4
	국민의힘 (326)	28	<u>65</u>	7
	조국혁신당 (114)	<u>97</u>	3	0
	무당층 (195)	59	2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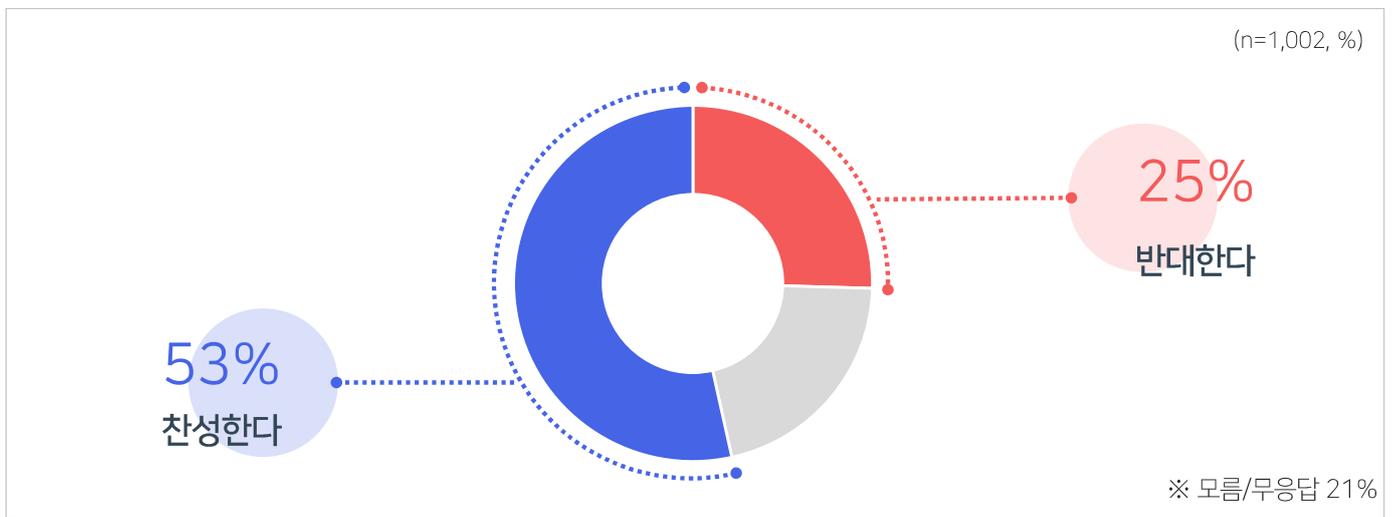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4. 방송4법에 대한 견해

문8

여·아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재표결하자고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방송4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방송4법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방송법 개정에 찬성한다' 응답이 53%로 '특정 이익단체 대변, 정치적 편파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 응답 25%보다 높음.
- ✓ '찬성한다'는 50대(70%), 자영업(64%), 화이트칼라(5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과 조국혁신당 지지층(71%), 진보 성향층(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대한다'는 70세 이상(32%), 강원/제주(40%), 국민의힘 지지층(33%), 보수 성향층(3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방송의 독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방송법 개정에 찬성한다	특정 이익단체 대변, 정치적 편파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53	25	21
연령	18세-29세 (149)	45	31	25
	30대 (147)	47	27	26
	40대 (153)	59	23	18
	50대 (211)	<u>70</u>	16	14
	60대 (191)	54	27	18
	70세 이상 (151)	41	<u>32</u>	28
지역	서울 (199)	54	21	25
	인천/경기 (312)	54	24	22
	대전/충청(세종) (99)	49	32	19
	광주/전라 (105)	59	25	16
	대구/경북 (96)	49	29	21
	부산/울산/경남 (151)	58	23	19
	강원/제주 (40)	36	<u>40</u>	24
직업	농/임/수산업 (29)	46	22	33
	자영업 (157)	<u>64</u>	22	13
	블루칼라 (212)	53	28	19
	화이트칼라 (239)	<u>59</u>	22	19
	주부 (193)	45	27	28
	학생 (62)	41	31	28
	무직/기타 (107)	51	29	20
	모름/무응답 (3)	100	0	0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299)	<u>67</u>	18	15
	국민의힘 (326)	42	<u>33</u>	25
	조국혁신당 (114)	<u>71</u>	18	11
	무당층 (195)	44	2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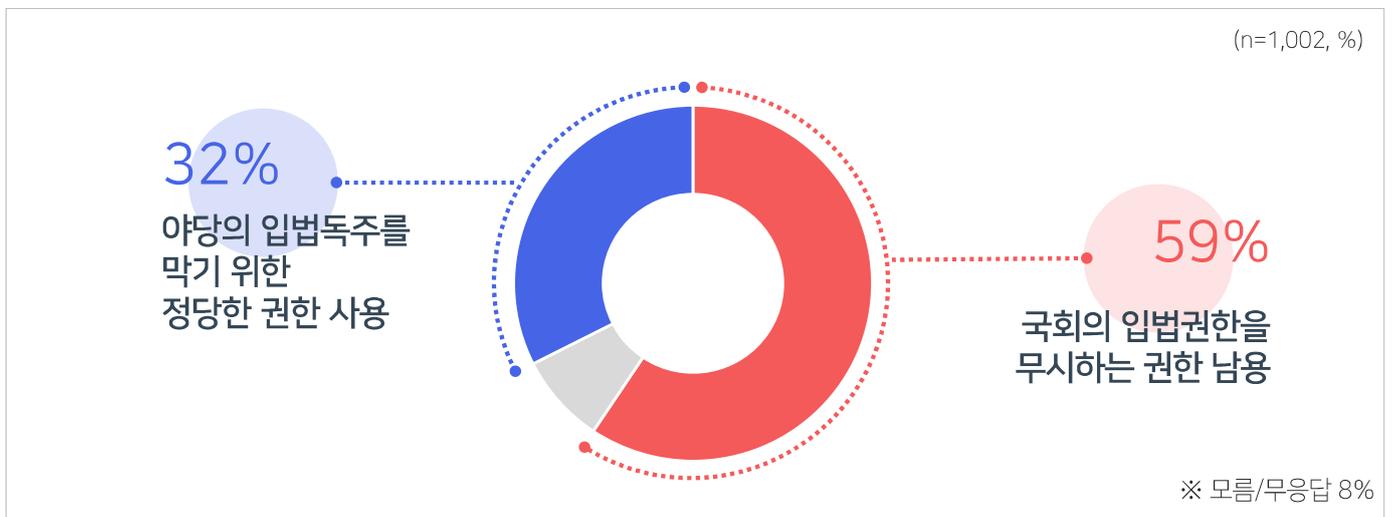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5.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해

문9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채해병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라는 응답이 59%로 '야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사용이다' 응답 32%보다 높음.
- ✓ '권한 남용이다'는 40대(76%), 50대(70%), 광주/전라(82%), 화이트칼라(7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과 조국혁신당 지지층(93%), 중도 성향층(63%), 진보 성향층(8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정당한 권한 사용이다'는 60대(45%), 70세 이상(59%), 대구/경북(49%), 주부(39%), 국민의힘 지지층(75%), 보수 성향층(62%)에서 높음.



구분	사례수	야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사용이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32	59	8
연령	18세-29세 (149)	24	62	14
	30대 (147)	27	61	11
	40대 (153)	19	<u>76</u>	5
	50대 (211)	24	<u>70</u>	5
	60대 (191)	<u>45</u>	50	5
	70세 이상 (151)	<u>59</u>	31	10
지역	서울 (199)	31	59	10
	인천/경기 (312)	32	61	7
	대전/충청(세종) (99)	38	53	9
	광주/전라 (105)	12	<u>82</u>	7
	대구/경북 (96)	<u>49</u>	41	11
	부산/울산/경남 (151)	31	59	10
직업	강원/제주 (40)	43	54	4
	농/임/수산업 (29)	64	34	2
	자영업 (157)	34	58	8
	블루칼라 (212)	29	64	8
	화이트칼라 (239)	24	<u>71</u>	6
	주부 (193)	<u>39</u>	50	11
	학생 (62)	16	66	18
	무직/기타 (107)	47	47	6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3)	29	71	0
	더불어민주당 (299)	7	<u>90</u>	3
	국민의힘 (326)	<u>75</u>	17	8
	조국혁신당 (114)	4	<u>93</u>	3
	무당층 (195)	19	6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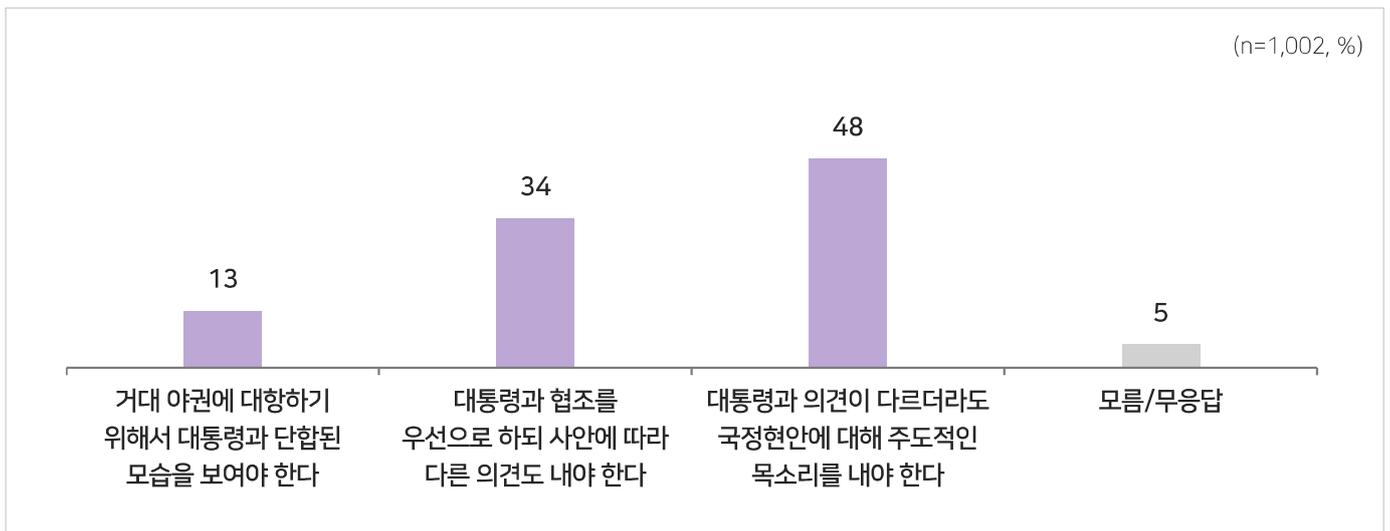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6.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에 대한 견해

문10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역할과 관련된 다음 주장 중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국정현안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통령과 협조를 우선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도 내야 한다' 34%, '거대 야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13% 순임.
- 한편, 국민의힘 지지층(n=326)에서는 다음으로 '대통령과 협조를 우선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도 내야 한다'가 39%로 높게 나타남.

- ✓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40대(60%), 50대(58%), 화이트칼라(57%), 진보 성향층(58%)에서 높음.
- ✓ '대통령과 협조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도 내야 한다'는 18-29세(44%), 학생(4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대통령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60대(19%), 70세 이상(29%), 보수 성향층(21%)에서 비교적 높음.



구분	사례수	거대 야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과 협조를 우선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른 의견도 내야 한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국정현안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13	34	48	5
국민의힘 지지층	(326)	28	39	31	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299)	4	29	62	5
연령	18세-29세 (149)	7	44	41	8
	30대 (147)	13	32	52	4
	40대 (153)	5	28	60	7
	50대 (211)	8	31	58	3
	60대 (191)	19	36	39	6
	70세 이상 (151)	29	35	32	4
직업	농/임/수산업 (29)	14	39	47	0
	자영업 (157)	16	28	49	7
	블루칼라 (212)	11	35	50	4
	화이트칼라 (239)	9	30	57	5
	주부 (193)	17	32	44	7
	학생 (62)	4	46	43	7
	무직/기타 (107)	19	44	31	6
	모름/무응답 (3)	0	34	66	0
이념 성향	보수 (277)	21	36	37	5
	중도 (374)	9	37	51	4
	진보 (264)	9	29	58	4
	모름/무응답 (87)	18	30	3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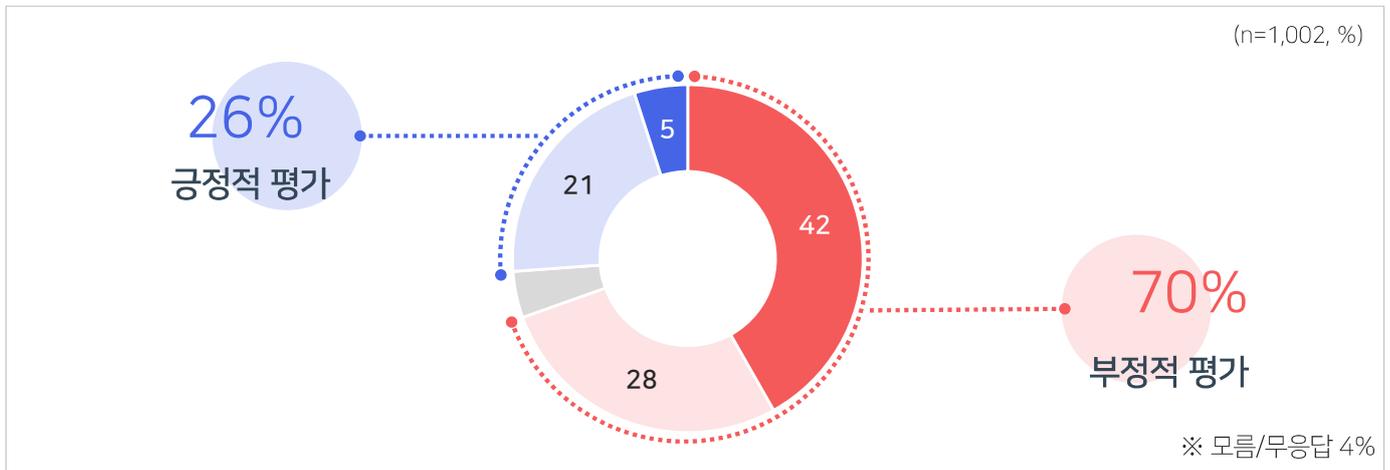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7. 경제, 민생 정책 평가

문11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민생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 민생 정책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26%,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70%임(모름/무응답 4%).
- ✓ '부정적 평가'는 30대(80%), 40대(82%), 50대(78%), 광주/전라(85%), 블루칼라(77%), 화이트칼라(78%), 중도 성향층(74%), 진보 성향층(8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긍정적 평가'는 60대(35%), 70세 이상(58%), 대구/경북(38%), 주부(37%), 보수 성향층(5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종합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전체	(1,002)	5	21	28	42	26	70	4
연령	18세-29세 (149)	2	17	46	28	20	73	7
	30대 (147)	3	12	39	41	15	<b>80</b>	5
	40대 (153)	2	13	24	58	15	<b>82</b>	3
	50대 (211)	5	13	20	57	18	<b>78</b>	4
	60대 (191)	6	29	17	44	<b>35</b>	61	4
	70세 이상 (151)	11	47	24	16	<b>58</b>	40	3
지역	서울 (199)	3	21	23	49	23	73	4
	인천/경기 (312)	7	19	29	40	25	70	5
	대전/충청(세종) (99)	6	23	27	43	29	69	2
	광주/전라 (105)	1	13	31	54	14	<b>85</b>	1
	대구/경북 (96)	3	36	25	28	<b>38</b>	53	9
	부산/울산/경남 (151)	8	18	30	40	26	70	4
직업	강원/제주 (40)	4	34	30	29	38	59	3
	농/임/수산업 (29)	5	46	19	25	51	44	5
	자영업 (157)	8	17	17	52	25	69	6
	블루칼라 (212)	4	14	36	41	18	<b>77</b>	4
	화이트칼라 (239)	3	16	26	52	19	<b>78</b>	3
	주부 (193)	4	33	24	34	<b>37</b>	58	4
	학생 (62)	1	17	51	25	18	77	5
	무직/기타 (107)	12	26	26	33	38	59	3
이념 성향	모름/무응답 (3)	0	29	0	71	29	71	0
	보수 (277)	11	41	25	21	<b>52</b>	46	2
	중도 (374)	3	18	36	39	20	<b>74</b>	5
	진보 (264)	2	7	18	71	9	<b>89</b>	2
	모름/무응답 (87)	4	17	30	34	21	6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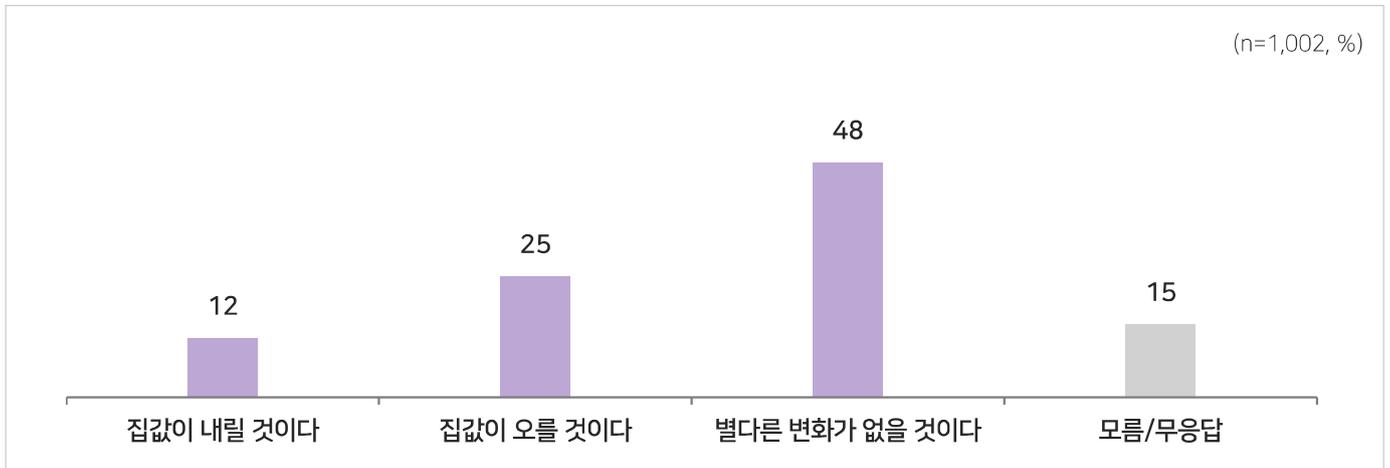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8. 부동산 정책 평가

문12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조치가 집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부동산 공급 대책과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 등의 평가에 대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25%, '집값이 내릴 것이다' 12% 순임.
- ✓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강원/제주(67%), 화이트칼라(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집값이 오를 것이다'는 중도 성향층(29%)에서, '집값이 내릴 것이다'는 블루칼라(16%), 보수 성향층(18%)에서 비교적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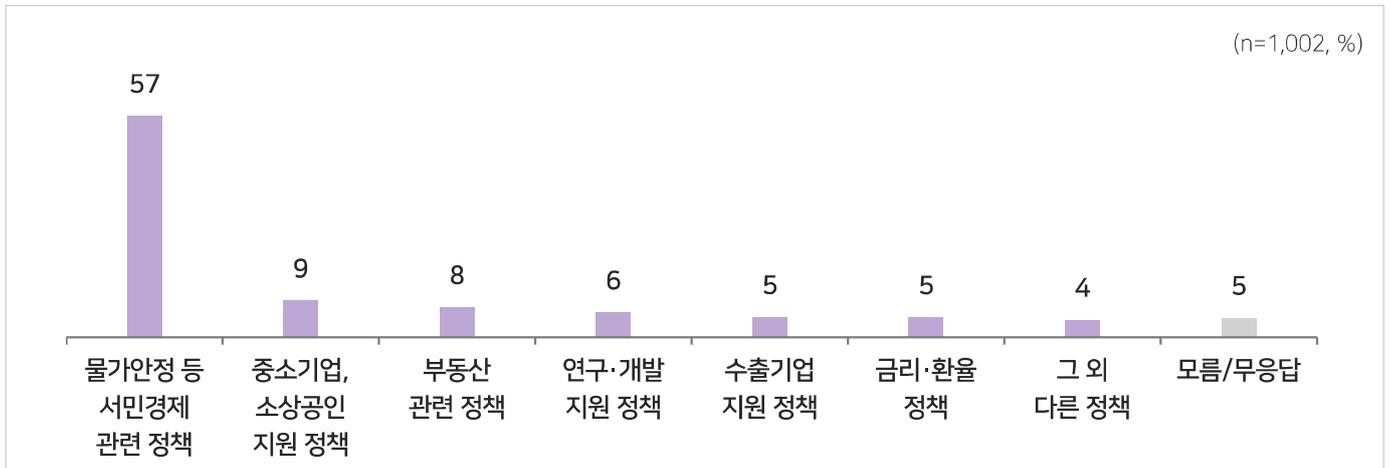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집값이 내릴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12	25	48	15
연령	18세-29세 (149)	11	30	42	17
	30대 (147)	13	30	47	10
	40대 (153)	12	24	52	11
	50대 (211)	9	27	53	10
	60대 (191)	16	19	48	17
	70세 이상 (151)	11	18	44	26
지역	서울 (199)	14	28	46	12
	인천/경기 (312)	12	24	48	16
	대전/충청(세종) (99)	14	26	44	16
	광주/전라 (105)	9	29	44	18
	대구/경북 (96)	13	20	52	15
	부산/울산/경남 (151)	10	26	48	16
강원/제주 (40)	13	13	<b>67</b>	7	
직업	농/임/수산업 (29)	10	23	53	14
	자영업 (157)	11	21	54	14
	블루칼라 (212)	<b>16</b>	27	44	13
	화이트칼라 (239)	11	28	<b>54</b>	7
	주부 (193)	10	21	43	25
	학생 (62)	9	23	45	23
	무직/기타 (107)	14	25	47	15
	모름/무응답 (3)	0	71	29	0
이념 성향	보수 (277)	<b>18</b>	19	49	15
	중도 (374)	11	<b>29</b>	47	13
	진보 (264)	10	26	51	12
	모름/무응답 (87)	8	20	41	31

## II. 각종 현안

### 9.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 정책

문13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경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6 로테이션)

-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 관련 정책'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9%, '부동산 관련 정책' 8%, '연구·개발 지원 정책' 6% 등의 순임.
- ✓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 관련 정책'은 50대(64%), 주부(66%), 진보 성향층(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부동산 관련 정책'은 30대(15%), 서울(1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 관련 정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	연구·개발 지원 정책	수출기업 지원 정책	금리·환율 정책	그 외 다른 정책	모름/무응답
전체	(1,002)	57	9	8	6	5	5	4	5
연령	18세-29세 (149)	47	8	12	7	6	9	5	6
	30대 (147)	40	8	<b>15</b>	10	8	6	10	3
	40대 (153)	63	9	3	6	2	8	6	3
	50대 (211)	<b>64</b>	12	4	6	5	5	3	2
	60대 (191)	61	10	9	5	4	2	3	6
	70세 이상 (151)	63	9	5	5	6	1	0	11
지역	서울 (199)	51	8	<b>15</b>	8	6	3	4	4
	인천/경기 (312)	57	9	7	8	7	4	5	4
	대전/충청(세종) (99)	63	6	7	5	3	4	7	5
	광주/전라 (105)	60	9	9	1	5	6	6	5
	대구/경북 (96)	59	10	4	6	6	5	5	5
	부산/울산/경남 (151)	58	13	4	7	2	7	2	7
	강원/제주 (40)	50	13	3	4	7	17	1	6
직업	농/임/수산업 (29)	55	11	3	5	5	19	0	2
	자영업 (157)	61	13	6	7	5	2	3	2
	블루칼라 (212)	55	10	6	8	5	6	5	4
	화이트칼라 (239)	52	11	11	6	5	8	7	1
	주부 (193)	<b>66</b>	6	7	4	3	2	3	9
	학생 (62)	48	7	8	11	5	8	3	10
	무직/기타 (107)	55	7	8	5	9	2	4	10
	모름/무응답 (3)	71	29	0	0	0	0	0	0
이념 성향	보수 (277)	48	10	10	8	9	6	5	5
	중도 (374)	56	9	9	7	5	5	5	4
	진보 (264)	<b>66</b>	9	6	5	4	5	3	3
	모름/무응답 (87)	61	8	4	3	1	2	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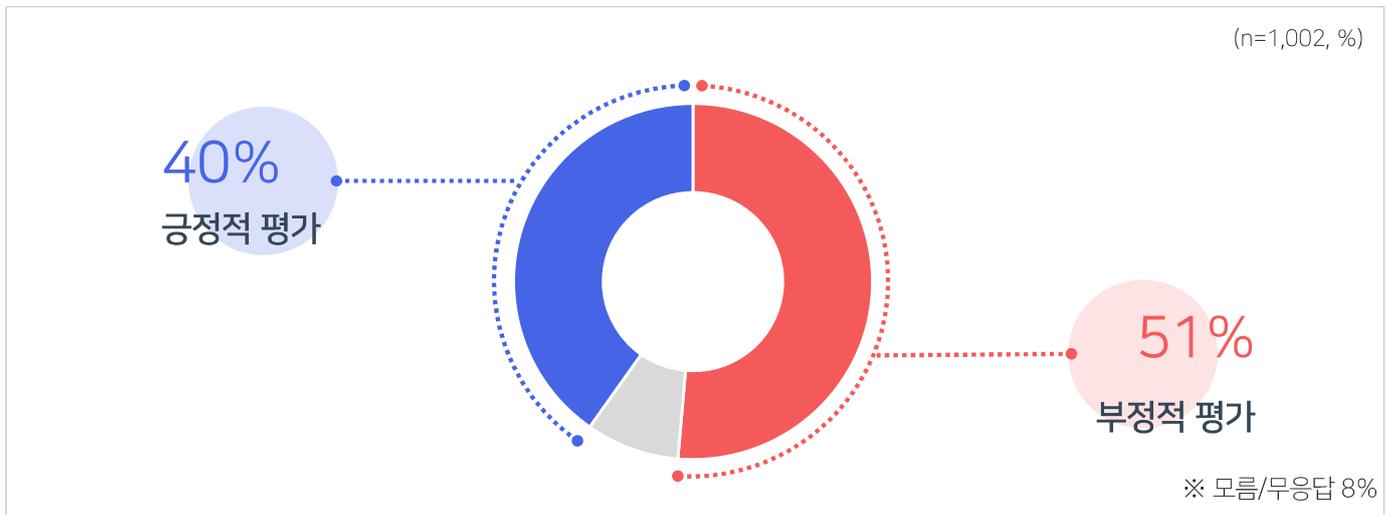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10.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문14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보험료를 청년은 천천히 인상하고, 중장년은 빠르게 인상하는 세대별 차등화 하는 국민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연금보험료를 세대별 차등화하는 국민개혁 방안에 대해 '또 다른 세대 갈등이나 반발을 야기하므로 부정적으로 본다' 응답이 51%로 '세대 간 형평성과 청년 부담 완화 방안이므로 긍정적으로 본다' 응답 40%보다 높음.
- ✓ '부정적 평가'는 40대(66%), 50대(62%), 광주/전라(70%), 화이트칼라(60%), 진보 성향층(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긍정적 평가'는 60대(48%), 70세 이상(53%), 인천/경기(45%), 보수 성향층(54%)에서 비교적 높음.



구분	사례수	세대 간 형평성과 청년 부담 완화 방안이므로 긍정적으로 본다	또 다른 세대 갈등이나 반발을 야기하므로 부정적으로 본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40	51	8
연령	18세-29세 (149)	39	51	11
	30대 (147)	42	53	5
	40대 (153)	28	<b>66</b>	6
	50대 (211)	34	<b>62</b>	4
	60대 (191)	<b>48</b>	42	10
	70세 이상 (151)	<b>53</b>	28	18
지역	서울 (199)	39	54	7
	인천/경기 (312)	<b>45</b>	47	8
	대전/충청(세종) (99)	41	52	7
	광주/전라 (105)	23	<b>70</b>	7
	대구/경북 (96)	46	42	12
	부산/울산/경남 (151)	40	50	10
직업	강원/제주 (40)	35	52	13
	농/임/수산업 (29)	44	52	4
	자영업 (157)	38	57	5
	블루칼라 (212)	42	50	7
	화이트칼라 (239)	37	<b>60</b>	3
	주부 (193)	42	44	14
	학생 (62)	39	46	15
	무직/기타 (107)	45	40	14
이념 성향	모름/무응답 (3)	0	100	0
	보수 (277)	<b>54</b>	40	7
	중도 (374)	40	52	8
	진보 (264)	29	<b>66</b>	5
모름/무응답 (87)	31	4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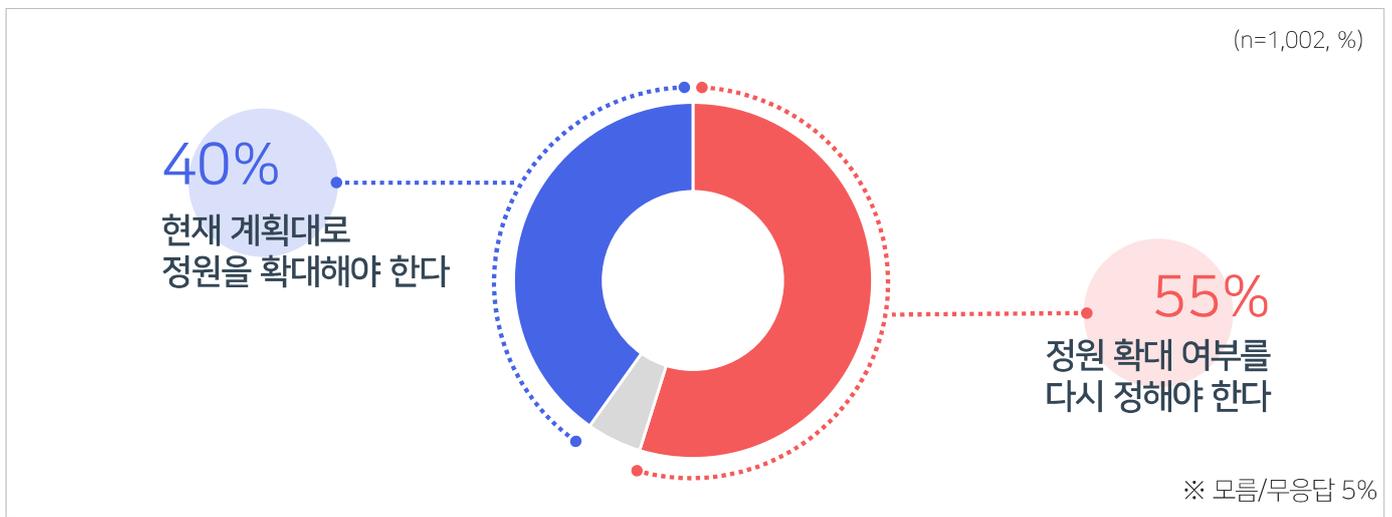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11.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

문15

내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1,509명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내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원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현재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40% 보다 높음.
- ✓ '의사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원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40대(66%), 50대(63%), 광주/전라(71%), 화이트칼라(61%), 진보 성향층(72%)에서 비교적 높음.
- ✓ '현재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70세 이상(51%), 대구/경북(59%), 보수 성향층(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현재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사협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원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40	55	5
연령	18세-29세 (149)	42	52	6
	30대 (147)	47	46	6
	40대 (153)	29	<u>66</u>	5
	50대 (211)	32	<u>63</u>	4
	60대 (191)	44	54	2
	70세 이상 (151)	<u>51</u>	42	7
지역	서울 (199)	36	61	3
	인천/경기 (312)	37	56	6
	대전/충청(세종) (99)	41	57	3
	광주/전라 (105)	25	<u>71</u>	4
	대구/경북 (96)	<u>59</u>	36	5
	부산/울산/경남 (151)	46	47	7
	강원/제주 (40)	53	43	4
직업	농/임/수산업 (29)	60	40	0
	자영업 (157)	44	52	4
	블루칼라 (212)	44	51	5
	화이트칼라 (239)	36	<u>61</u>	3
	주부 (193)	34	56	10
	학생 (62)	34	61	5
	무직/기타 (107)	48	48	3
	모름/무응답 (3)	0	100	0
이념 성향	보수 (277)	<u>56</u>	40	4
	중도 (374)	40	55	4
	진보 (264)	25	<u>72</u>	3
	모름/무응답 (87)	37	45	18

##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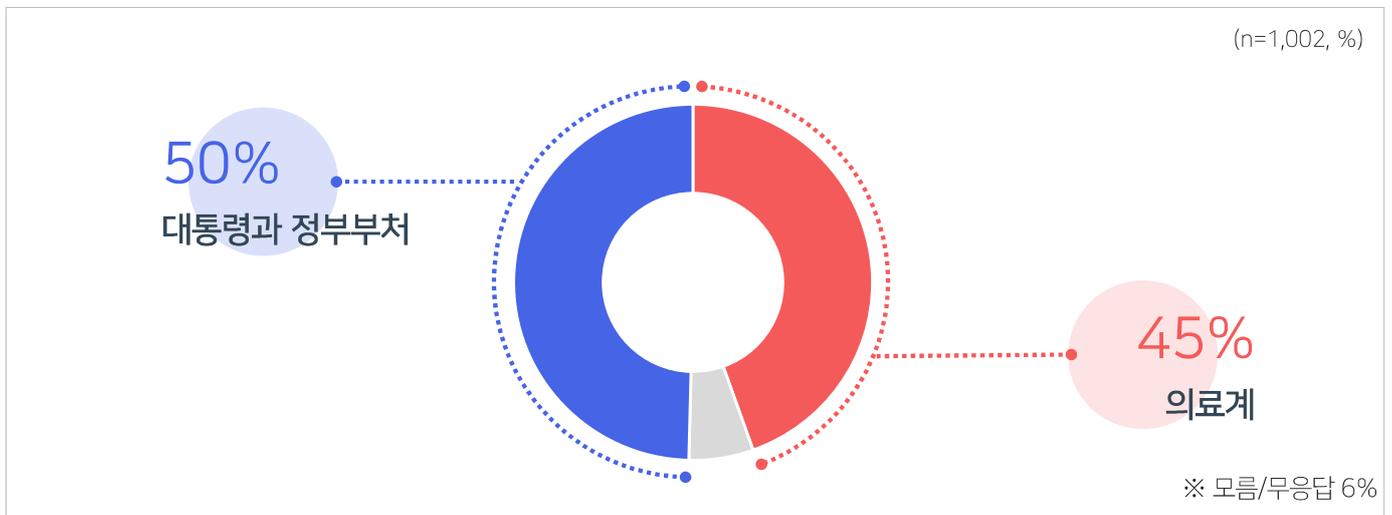
### 12. 의정갈등 책임

문16

의료 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크다고 보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의료 정책 갈등 심화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부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50%,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남

- ✓ '대통령과 정부부처'는 40대(58%), 50대(59%), 서울(58%), 광주/전라(65%), 진보 성향층(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의료계'는 70세 이상(56%), 대구/경북(62%), 보수 성향층(64%)에서 비교적 높았음.



구분	사례수	대통령과 정부부처 책임이 더 크다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2)	50	45	6
연령	18세-29세 (149)	46	46	8
	30대 (147)	41	51	8
	40대 (153)	<u>58</u>	36	7
	50대 (211)	<u>59</u>	38	3
	60대 (191)	50	45	4
	70세 이상 (151)	39	<u>56</u>	5
지역	서울 (199)	<u>58</u>	38	4
	인천/경기 (312)	45	46	9
	대전/충청(세종) (99)	53	44	3
	광주/전라 (105)	<u>65</u>	30	5
	대구/경북 (96)	37	<u>62</u>	1
	부산/울산/경남 (151)	47	47	6
	강원/제주 (40)	44	47	8
직업	농/임/수산업 (29)	35	65	0
	자영업 (157)	53	43	3
	블루칼라 (212)	45	49	6
	화이트칼라 (239)	53	43	3
	주부 (193)	51	37	12
	학생 (62)	45	47	8
	무직/기타 (107)	47	49	4
	모름/무응답 (3)	100	0	0
	이념 성향	보수 (277)	33	<u>64</u>
중도 (374)	50	44	6	
진보 (264)	<u>70</u>	27	3	
모름/무응답 (87)	39	4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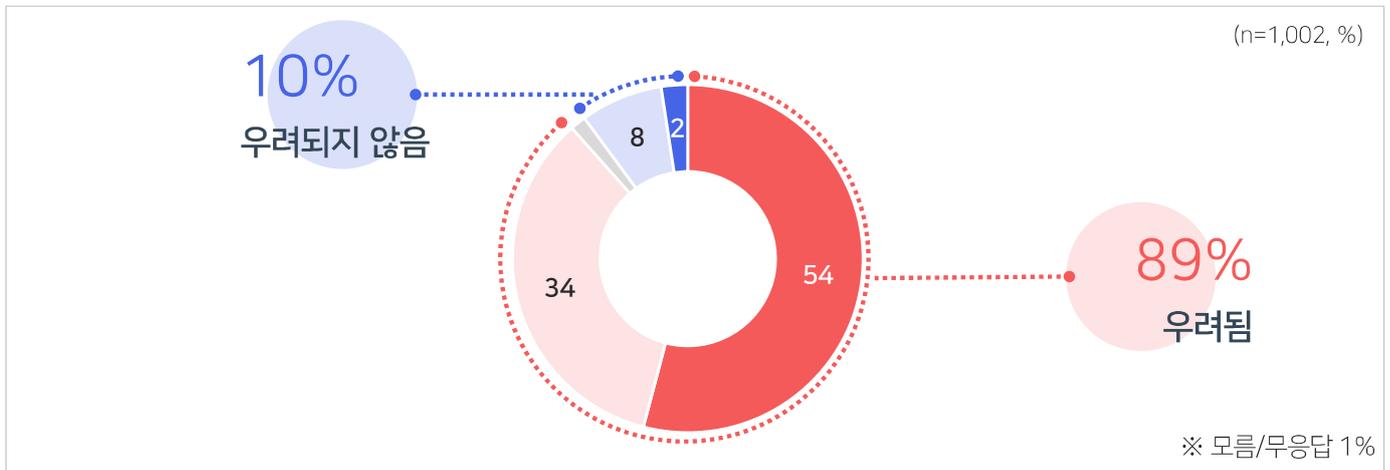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13.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견해

문17 의료 정책 갈등으로 인해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료 정책 갈등으로 인해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우려됨'(매우+우려되는 편)은 89%, '우려되지 않음'(전혀+우려되지 않는 편)은 10%임.

- ✓ '우려됨'은 모든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진보 성향층(9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우려되지 않음'은 70세 이상(17%), 대구/경북(16%), 강원/제주(22%), 보수 성향층(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	우려되지 않는 편이다	우려되는 편이다	매우 우려된다	종합평가		
						우려되지 않음	우려됨	모름/무응답
전체	(1,002)	2	8	34	54	10	89	1
연령	18세-29세 (149)	1	7	44	46	9	90	2
	30대 (147)	3	7	32	57	10	89	1
	40대 (153)	2	4	29	63	7	92	1
	50대 (211)	2	6	26	66	7	92	0
	60대 (191)	3	9	28	59	12	86	2
	70세 이상 (151)	3	14	52	28	17	80	3
지역	서울 (199)	1	7	36	52	8	89	3
	인천/경기 (312)	3	8	35	54	10	89	1
	대전/충청(세종) (99)	2	5	32	59	7	91	2
	광주/전라 (105)	1	5	30	63	6	93	1
	대구/경북 (96)	1	15	36	46	16	82	2
	부산/울산/경남 (151)	4	6	34	56	9	90	1
직업	강원/제주 (40)	12	10	36	42	22	78	0
	농/임/수산업 (29)	13	3	40	44	16	84	0
	자영업 (157)	2	9	31	57	11	89	1
	블루칼라 (212)	2	8	28	58	10	87	3
	화이트칼라 (239)	2	6	30	61	9	91	1
	주부 (193)	0	7	39	51	7	90	2
	학생 (62)	0	12	45	44	12	88	0
	무직/기타 (107)	7	7	45	40	14	84	2
	모름/무응답 (3)	0	0	29	71	0	100	0
이념 성향	보수 (277)	4	11	45	38	15	83	2
	중도 (374)	4	7	36	53	10	89	1
	진보 (264)	0	4	24	72	4	96	0
	모름/무응답 (87)	0	12	26	55	12	8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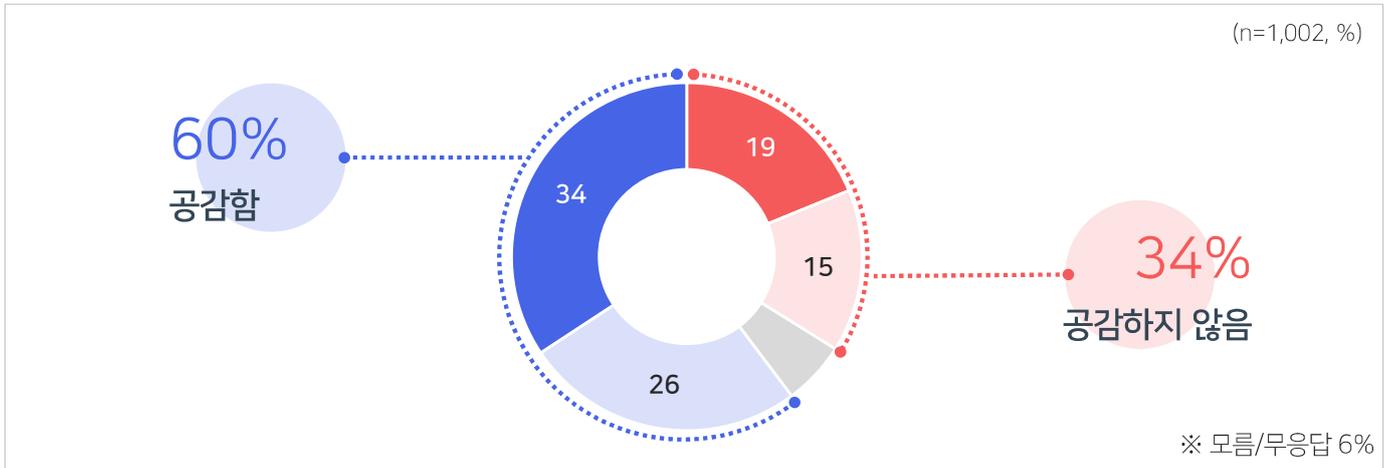
## II. 각종 현안

### 14. 친일외교에 대한 견해

문18

민주당에서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일 외교를 친일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대일 외교를 친일 외교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공감함'(매우+공감하는 편)은 60%, '공감하지 않음'(매우+공감하지 않는 편)은 34%임.
- ✓ '공감함'은 40대(78%), 50대(74%), 광주/전라(75%), 화이트칼라(71%), 중도 성향층(66%), 진보 성향층(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공감하지 않음'은 60세 이상(60대 46%, 70세 이상 56%), 대구/경북(45%), 보수 성향층(60%)에서 특히 높았음.



구분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공감하는 편이다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종합평가		
						공감함	공감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전체	(1,002)	34	26	15	19	60	34	6
연령	18세-29세 (149)	18	36	23	10	54	33	13
	30대 (147)	26	37	15	13	63	29	8
	40대 (153)	49	29	7	11	<b>78</b>	19	3
	50대 (211)	50	23	8	16	<b>74</b>	24	2
	60대 (191)	39	11	15	31	49	<b>46</b>	5
	70세 이상 (151)	16	22	25	31	38	<b>56</b>	6
지역	서울 (199)	39	22	16	17	60	33	7
	인천/경기 (312)	34	25	14	20	58	35	7
	대전/충청(세종) (99)	41	23	9	21	63	30	6
	광주/전라 (105)	43	32	15	7	<b>75</b>	22	3
	대구/경북 (96)	20	27	20	25	47	<b>45</b>	8
	부산/울산/경남 (151)	33	31	15	17	64	33	4
직업	강원/제주 (40)	20	29	21	28	48	48	3
	농/임/수산업 (29)	31	14	19	37	44	56	0
	자영업 (157)	42	19	12	22	61	34	5
	블루칼라 (212)	36	26	14	19	62	32	6
	화이트칼라 (239)	41	31	12	13	<b>71</b>	25	4
	주부 (193)	31	23	16	22	54	39	8
	학생 (62)	18	38	26	0	56	26	17
	무직/기타 (107)	20	28	20	28	48	48	3
이념 성향	모름/무응답 (3)	71	0	0	29	71	29	0
	보수 (277)	15	20	20	40	35	<b>60</b>	5
	중도 (374)	33	33	15	14	<b>66</b>	29	5
	진보 (264)	60	25	8	6	<b>86</b>	14	1
	모름/무응답 (87)	23	16	24	9	39	34	27

## 2024년 추석 특집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5차)

---

**연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발행명** MBC 2024년 정치·사회 여론조사(5차)

**발행일** 2024년 09월 13일

**발행처** 코리아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8, 석오빌딩  
TEL : 02-3415-5100

<비매품>